

## 11대 기본수칙 에서 무재해 꿈 실현

### -삼성중공업(주)삼성화재부천사옥 현장-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한층한층 올라가는 곳이 있다.

현장 외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회사를 상징하는 파란색의 안전망을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어 파란기둥을 연상케 한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우수현장으로도 선정된 삼성중공업(주)삼성화재부천사옥 신축현장(류호열 소장이 오늘 찾은 현장이다.

서두에서 현장의 첫인상을 이야기 했지만 현장 내부 또한 건설현장이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재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우수현장으로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지면적 1천173m<sup>2</sup>에 건축면적 705.2m<sup>2</sup>로 지하 3층, 지상 1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난해 8월 17일에 착공하여 2003년 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삼성화재부천사옥 신축현장은 건설현장 규모치고는 큰 현장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체제는 체계적이고 세심함이 여느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방불케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

수』, 『정리·정돈 철저』,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현장 안전관리 방침으로 내세우고 오늘까지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는 이곳은 제7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부천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이 대외적으로 환경·안전보전에 있어 이 현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화재부천사옥 신축현장을 처음으로 책임 맡고 있는 류호열 소장은 이러한 결과에도 개의치 않고 긴장을 누추지 않는다. 아직도 준공까지 감전, 화재 등 잠재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근로자는 내 가족처럼 살피는 류호열 소장은 단합을 중요시하며, 단합에 대해 『단합은 나로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현장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항시 주머니에는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이는 하루에 수십명의 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하는데 최대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이다.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시 일변도의 관리보다 시대조류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류소장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류 호 열 소장

이는 이곳 현장에서의 안전지시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 추락재해 없는 현장

건설현장에서의 재래형 재해는 아직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추락재해는 건설업 재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추락재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모든 개구부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골조공사시 개구부는 아예 철근을 배근하여 개구부 자체를 마감공사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입상다트 개구부는 다트 설치 직전에 철근을 절단하여 후속작업을 시행할 경우 개구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 반입구 등 대형개구부는 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 반입구 사용 즉시 덮도록 한다.

건물 외부는 안전방망을 주문제작 설치를 하였고, 모든 비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수평, 수직, 틈새에서의 추락가능 요소를 원천



봉쇄하였다.

###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전직원 현장 패트론펜을 운영하고 있는 이 현장은 직종구분 없이 매일 안전 당직과는 별개로 전직원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안전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이때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며, 시간이 요구되는 사항은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조치토록 피드백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전직원을 안전요원화하여 담당공종의 공사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 그야말로 자율적인 멀티 플레이어로 활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는 매일 아침 조회시 협력사 작업반장이 당일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나타난다.

자발적인 안전활동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개선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설, 관리, 교육이 선행



## 초일류 현장 탐방

되어 앞서가는 안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류호열 소장은 현장 가족들에게 『논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밖에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 준공을 비롯해 시대적 조류에 맞게 직원 각자도 전문 영역을 키웠으면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다.

삼성화재부천사옥에서 소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류호열 소장에게 개인적으로 무재해 소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길 바라며, 준공 그날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는 무재해 준공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